

II. 정치 및 경제 현황

1. 정치·외교 현황

가. 정치상황

□ 1960년 6월 30일, 벨기에로부터 독립

- DR콩고는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서구의 침입을 받았고, 1878년 벨기에가 국제콩고협회를 조직하여 DR콩고를 통치하였음.
- 1908년 벨기에 정부의 식민지인 벨기에령 콩고가 되었다가 1960년 6월 30일 독립하였음.
- 독립 당시에는 콩고공화국이라고 칭하였으나, 1964년 콩고민주공화국, 1971년 자이레공화국을 거쳐 1997년 이후 오늘날의 국명을 사용하고 있음.

□ 카빌라 대통령의 인정적 집권 지속, 인권상황은 열악

- 2002년 11월, 6년간의 내전 및 이웃국가들과의 전쟁이 종식되고 과도정부가 설립된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실시된 2006년 국민투표에서 카빌라를 수반으로 하는 합법정부가 탄생하였음.
- 카빌라 대통령은 공약으로 인프라 확충과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으며, 그의 아버지의 고향인 Katanga와 동부 지역에서 지지를 얻었음.

<표 II-1> 2006년 7월 총선 결과

순위	정 당	득표율	의석수
1	Parti du peuple pour la reconstruction et la démocratie (PPRD)	22.2	111
2	Mouvement de libération du Congo (MLC)	12.8	64
3	Parti lumumbiste unifié (Palu)	6.8	34
4	Mouvement social pour le renouveau (MSR)	5.4	27
5	Forces du renouveau	5.2	26
6	Rassemblement congolais pour la démocratie (RCD)	3.0	15
7	Coalition des démocrates congolais (Codeco)	2.0	10
8	Convention des démocrates chrétiens (CDC)	2.0	10
9	Union des démocrates mobutistes (Udemo)	1.8	9
10	기타	38.8	194
합계		100.0	500

자료 : EIU, Country Profile, 2008.

II. 정치 및 경제 현황

- 공약에 대한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강력한 야당 후보가 없어 2011년 또는 2012년에 치러질 대선에서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음.
- DR콩고 인권상황에 대한 UN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반대파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사회운동가 등에 대한 암살과 고문이 성행하는 등 동국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임.

□ 카빌라 대통령의 강력한 개발의지

- 2006년 『빈곤경감 및 성장을 위한 발전계획(PRGSP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 Paper)』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이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5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DR콩고 정부는 경제재건 및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통화·재정 정책을 통해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보유액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 기구의 원조도 적극적으로 유치함.

나. 사회 및 소요사태

□ 2007년 카빌라 대통령 경호부대와 뱀바 경호사병간 충돌 발생

- 2007년 3월 수도 Kinshasa에서 카빌라 대통령의 경호부대와 뱀바 전 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하면서 300명 이상이 사망하였음. 지난 2008년 브뤼셀에서 망명 중이던 뱀바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전범으로 체포되었음.

□ 인적자원 부족

- DR콩고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도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내전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급감하면서 ('08년 기준 54세)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하게 되었음.
- 오랜 내전으로 인해 공교육 시스템이 붕괴되어 1998년 중학교 진학률이 약 12%에 불과하였으며, 동년 성인 남녀의 문맹률도 각각 19%와 46%로 집계되는 등 성별에 따른 교육수준의 격차가 심각한 실정임.
- 2009년 UNDP가 발표한 인적자원개발지수 순위에서도 총 182개국 중 176위를 기록하는 등 인적자원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실정임.

□ 동부지역에서의 무력 충돌이 사회적 혼란 초래

- 2006년 말 콩고의 투치족 장군 로랑 은쿤다가 이끄는 반군이 북부 Kivu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하면서 약 80만 명의 실항민이 발생하였음.
 - DR콩고와 접경국인 르완다는 2006년 나이로비 협정을 체결, 은쿤다 세력을 비롯한 Kivu 지역의 반군 무력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하였음.
- 2008년 1월 은쿤다 장군과 콩고 정부를 비롯한 분쟁 당사자들이 모여 평화회담을 개최하였으나, 동년 8월과 9월 또 다시 전쟁이

발발하여 약 25만 명의 실항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음.¹⁾

- 2009년에도 DR콩고 동부에 근거지를 둔 LRA (우간다 반군 '신의 저항군') 및 FDLR (후투족르완다해방민주세력) 등 주변국 반군의 공격이 심화되어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실항민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²⁾
 - 최근 와해된 부룬디 반군의 잔류세력이 FDLR에 합류함으로써 향후에도 동 지역의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다. 대외관계

□ 석유 매장지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 DR콩고는 2007년 카빌라 정부가 들어선 이래 석유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석유 매장지 확보에 주력하는 과정에서 주변국과 갈등을 빚어 왔음.
 - 2007년 말부터 상당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Lake Albert 지역에서 우간다와 몇 차례의 군사 충돌이 있었음.
- 해양경계선과 해양석유 시추권을 둘러싸고 앙골라와 갈등을 빚고 있음. 급격한 재정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석유 매장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동국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국제중재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음.

1)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전쟁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자행되었음.

2) UN 추정치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한 DR콩고의 실항민은 약 200만 명에 달하며, Kivu 지역에만 13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르완다와는 긴장 속 해빙 국면

- 2002년 프리토리아 의정서를 통해 DR콩고에 주둔해 있던 르완다 병력이 철수되었으나, FDLR 반군이 여전히 콩고 동부지역에 주둔함으로써 양국간 갈등의 요인이 됨.
- DR콩고 정부와 MONUC(콩고민주공화국을 위한 UN파견단)³⁾은 2007년까지 FDRL 반군을 몰아내겠다고 르완다에 약속해왔으나 현재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DR콩고와 르완다 정부는 2009년 1월 FDRL 반군에 대항해 공동의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에 합의한 데 이어, 동년 8월 6일 외교관계 단절 13년 만에 최초로 정상회담을 개최해 경제, 안보 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서방 및 국제사회의 지원 지속

- DR콩고의 내부적 변혁 과정에서 서방국가들과의 양자 협력 및 UN, IMF 등의 국제적 지원이 경제적, 외교적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음.

□ 중국과의 관계 강화

- 통신산업, 광업 등을 중심으로 DR콩고와 중국 간 무역관계가 심화되어 왔음. 중국은 DR콩고의 광물 채굴권을 취득하는 대신 중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90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공여하는 등 동국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3) 약 2만 명 규모로 DR콩고 전역에 파견되어 있으나,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UN파견단임.

- 중국은 광산개발,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 뿐 아니라 군사 장비 및 군사훈련도 지원하고 있으며 UN안보리 회의에서도 DR콩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함.

2. 경제 현황

가. 국내경제

<표 II -2>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f
경 제 성 장 률	5.6	6.3	6.2	2.7	5.2
재 정 수 지 / GDP	-0.7	-2.5	-2.3	-3.2	-12.2
소비자물가상승률	13.2	16.7	18.0	46.1	25.0

자료 : IFS, EIU Country Report: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June. 2010.

(1) 경제성장

□ 2010년 경제성장 회복 전망

- DR콩고는 2003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 사회 안정, 국제금융기구 및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 지원, FDI 유입 확대 등에 힘입어 연평균 6%대의 견실한 경제성장을 지속해왔음.
- 2009년에는 최대 수출품인 다이아몬드의 국제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가 지속되었으며, 외국인투자가 위축되면서 광업부문의 성장이 둔화되고 농산물의 국제가격이 급락하면서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됨.

- 중국에 의한 공공부문 인프라구축 프로젝트의 확장과 2009년 이후 30% 가까이 감소했던 전자·통신 부문의 소비 증가로 인해 2010년에는 5.2%의 성장이 예상됨.

(2) 재정수지

□ 재정수지는 만성적 적자기조 지속

- 2006년 카빌라 대통령 당선 이후 교육, 보건 등 사회 인프라 분야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관세수입의 감소, 접경지역에서의 잦은 무력충돌로 인한 군사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는 만성적인 적자기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DR콩고는 그동안 공무원의 임금삭감, 국채상환 연기 등 긴축재정 정책 추진을 통해 재정적자에 대응해왔으나, 2009년부터는 해외 원조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였음.
 - 원조 프로그램의 이행의무로 인해 당국은 당분간 계속해서 긴축 재정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교육, 보건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국내 인프라투자 확대와 2011년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0년에도 GDP 대비 12%의 재정적자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3) 소비자물가

□ 두 자릿수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속

- 내전 이후 한 때 500%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으로 인해 2003년 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4%까지 안정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 군비지출 증가로 또 다시 21.3%까지 상승한 이후 줄곧 두 자릿수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 2009년에는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국제 유가와 국제 식료품 가격 하락 등 물가하락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원조에 제동이 걸린 DR콩고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통화발행을 증가시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목표치인 31.2%를 크게 상회하는 46.1%를 기록함.
- 최근 농업 부문의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저하되어, 2010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긴축통화정책 지속 전망

- DR콩고 중앙은행은 지난 몇 달간 기준금리를 70%에서 52%까지 낮추었으나, 이후 콩고 프랑 가치 상승을 위해 50% 이상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PRGF 실행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나. 대외거래

(1) 경상수지

□ 경상수지 및 상품수지 적자기조

- 경상이전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상수지의 구성항목은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음.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적자 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15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표 II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6	2007	2008	2009e	2010 ^f
경 상 수 지	-183	-153	-1,841	-1,753	-1,471
경상수지/GDP	-2.1	-1.5	-15.8	-16.3	-12.3
상 품 수 지	39	886	-126	-1,460	-200
수 출	2,931	6,143	6,585	3,790	7,200
수 입	2,892	5,257	6,711	5,250	7,400
외 환 보 유 액	155	181	78	1,001	894
총 외 채 잔 액	11,244	13,609	13,362	13,478	16,555
총외채잔액/GDP	128.0	137.0	115.4	122.5	135.7
D . S . R .	..	12.3	12.5	21.8	13.6

자료 : CRAM, EIU, Country Report: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June. 2010.

II. 정치 및 경제 현황

- 2009년에는 소비재 가격 하락 및 수요 감소에 따라 수입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광물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과 코발트의 국제 가격 급락에 의해 수출실적이 크게 감소하여 상품수지는 약 1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음.
- 2010년에는 광물 생산의 증가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이 전년 대비 90% 증가한 7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및 수요 증가, 중국의 광산개발, 인프라구축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재 구입에 따른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상품수지 적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 교역규모 (상품) : 수출 37억 달러, 수입 53억 달러 (2009)

- 교역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9년 교역규모는 2006년 58억 달러에 비해 55%나 증가한 90억을 기록함.
- 주요 수출품목은 코발트(38.3%), 구리(35.4%), 원유(11.9%), 다이아몬드(10.7%)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석유제품(11.6%), 비석유제품(88.4%)임.
- 주요 수출국은 중국(47.3%), 벨기에(15.4%), 핀란드(9.6%), 미국(8.1%)이고, 주요 수입국은 남아공(28.4%), 벨기에(9.9%), 잠비아(7.1%), 짐바브웨(6.0%)임.

(3) 외채 및 금융지원 현황

1) 외채 현황

□ 국제원조로 외환보유액 증가

- DR콩고의 외환보유액은 2007년 1.8억 달러에서 2008년 7,800만 달러로 축소되는 등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2009년 3월 IMF와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원조 유치에 힘입어 2009년 12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1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DSR과 외환보유액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DP를 초과하는 막대한 외채규모를 가지고 있음.

□ 외채부담은 감소될 전망

- 2008년 11월, DR콩고는 IMF의 빈곤감축성장 프로그램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 : PRGF) 참여를 승인받은 데 이어, 파리클럽과 체결한 협정을 통해 6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채무를 탕감 받고 1억 2천만 달러의 공적채무에 대해 리스케줄링을 얻어낸 바 있음.
- 2010년 초에는 PRGF 및 고채무빈국해결방안(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s: HIPC Initiatives)⁴⁾의 지원이 재개되어 외채가 상당부분 경감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에는 HIPC 이니셔티브 완결시점(Completion Point)에 도달

4) 1996년 IMF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출범한 HIPC 이니셔티브는 건전한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고채무저소득국을 대상으로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고채무를 지속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 1단계인 결정점에 도달하면 채무구제 여부 및 구제규모를 결정하여 잠정채무구제가 가능해짐.

II. 정치 및 경제 현황

하여, HIPC 이니셔티브와 다자채무탕감안(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하에 123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탕감받음.

- 채무상환비율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GDP 규모를 넘어서는 막대한 외채규모로 인해 채무 탕감 이후에도 경제가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됨.

2) PRGF 금융지원 승인

① 내역

□ PRGF를 통한 5.5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승인

- 2009년 12월 11일 IMF는 DR콩고에 대한 5.5억 달러의 금융(만기 10년) 지원을 승인하였음. PRGF에 따른 이 자금지원분 중 8천만 달러는 승인과 동시에 인출되었고, 나머지는 7차례에 걸쳐 제공될 예정임.
- 6년간의 협상과정을 거친 이번 금융지원 결정은 특히 2007년에 체결된 '중국-DR콩고 협력협약'⁵⁾ (Sino-Congolese Cooperation Agreement : SCCA)이 IMF의 요청에 따라 공식 수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
- DR콩고는 2002년 6월에도 PRGF로 9.2억 달러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며, 2009년 3월에는 2.1억 달러 규모의 외부충격기금⁶⁾

5) 당초 협약 내용은 중국이 DR콩고에 총 90억 달러(광산개발에 30억 달러 및 항만, 공항, 병원, 댐 등 인프라 건설에 60억 달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DR콩고가 중국에 구리 1천만 톤, 코발트 60만 톤의 채굴을 허용하는 것임.

6) PRGF 내의 기금으로, 외부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으로 저소득국의 국제수지 균형에 심각한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국제수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양허적 성격의 기금임.

(Exogenous Shocks Facility)을 지원받은 바 있음.

- 또한, IMF는 PRGF를 승인함과 아울러 HIPC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대 DR콩고 IMF 채무 7,300만 달러에 대한 잠정채무구제(Interim Debt Relief) 결정도 승인하였음⁷⁾.

<PRGF의 주요 내용>

- IMF가 회원국 중 저소득국(Low-Income Countries)의 빈곤감축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1999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PRGF는 빈곤감축전략보고서(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s)를 기초로 금융지원의 목적과 정책 등을 마련함. 이 보고서는 세계은행과 IMF가 공동 주도하는 HIPC 이니셔티브의 채무경감에도 활용됨.
- PRGF의 추진 원칙
 1. 해당국 정부의 주도 하에 사회전반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
 2. 빈곤감축과 경제성장이 목적이나 거시경제가 안정될 경우 해당국의 상황, 빈곤해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조절 가능
 3. 재원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2008년 8월 기준으로 PRGF 지원가능 대상국⁸⁾은 78개국이며, 이자율은 연 0.5% 수준임.

7) DR콩고는 2003년 7월에 HIPC 이니셔티브의 결정시점(decision point)에 도달하였음.

8) 2007년을 기준으로 1인당 GNI가 1,095달러 이하인 국가 (세계은행의 양허성차관 지원 기준)

<표 II-4> IMF의 대 DR콩고 차관 지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자금 종류	승인일	만기일	승인액	집행액	잔액
PRGF	2009.12.11	2012.12.10	554	80	603
	2002. 6.12	2006. 5.31	928	884	
대기성차관	1989. 6. 9	1990. 6. 8	186	120	-

자료 : IMF.

□ DR콩고에 대한 PRGF 프로그램의 개요

- 2012년 6월까지 3년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특히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관리, 재정건전성 강화, 채무 상환능력 개선과 구조 개혁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주요 목표
 - 평균 경제성장률 : 2010~12년 중 연 5.5%
 - 소비자물가상승률 : 2012년 말 기준 9% 이내
 - 외환보유액 : 월평균수입액의 2.5개월분 이상
 - 경상수지 적자 : GDP 대비 25% 이내
- 주요 구조개혁 내용 (예정)
 -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수입 증대 등 재정건전성 관리강화
 - 예산에 대한 계획,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강화
 - 중앙은행의 독립성, 감독권한 강화

② IMF의 지원 배경

□ 국제 상품가격의 하락 및 국경 분쟁으로 경제 악화

- DR콩고는 1998~2003년의 내전으로 인적자원, 인프라 등이 큰 타격을 입었으나, 다이아몬드와 코발트 등 광물자원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6%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중 국제 상품가격의 하락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예년보다 크게 낮은 2.7%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2008년 9월 반군의 공격으로 시작된 동부지역 국경지대의 분쟁은 군비조달을 위한 통화발행 증가로 이어지며 2009년에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물가상승률도 연 40%대로 급등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통화가치의 하락, 외환보유액 감소

- 콩고 프랑화의 가치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달러 대비 35% 하락하였으며, 외환보유액은 2009년 2월에 사상최저 수준인 3천만 달러로 감소하기도 하였음.
 - 이후 SCCA에 따른 중국 정부의 금융지원 등 국제원조가 지속되며 2009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1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고채무상황 지속으로 인한 외채상환능력 악화

- DR콩고는 2003년 7월에 HIPC 이니셔티브 결정시점에 도달하여 동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경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IMF 등 개발 금융기관과 상업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상환 연체가 지속되는 상황이었음.

□ DR콩고, '중국-DR콩고 협력협약' 수정 성공

- DR콩고는 IMF의 조속한 PRGF 지원을 희망하였으나, IMF는 2007년에 체결된 SCCA의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공식 언급함.
 - IMF는 세계 금융위기로 국제 상품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DR콩고의 광물 수출이 인프라 건설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며, 중국이 상업적 조건으로 DR콩고를 지원한다면 외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함.
- DR콩고는 2009년 8월 IMF 및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협약상의 지원규모를 9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줄이고, 인프라 건설에 대한 DR콩고 정부의 보증조건을 제외하기로 동 협약을 수정하였음.
 - DR콩고는 인프라 건설을 추진함과 동시에 HIPC 이니셔티브상의 채무 상환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중국과의 협약을 수정함으로써 IMF의 PRGF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냄.

□ 파리클럽도 DR콩고에 대한 IMF 채무경감조치에 동의

- DR콩고의 총외채잔액 중 100억 달러 이상이 파리클럽 (Paris Club)⁹⁾ 소속 국가들에 대한 채무임을 고려하여 IMF는 DR콩고에 대한 PRGF 지원과 채무경감 개시를 위해 파리클럽의 대 DR콩고 채무재조정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미국과 캐나다가 자국 광산기업들과의 채무연체 등을 이유로

9) 파리클럽은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 19개 회원국 공적 채권국가들의 비 공식 회의체로 1956년 첫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주로 개도국의 공적채무 (Public Sector Debt) 구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함.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2009년 11월에 모든 회원국이 IMF의 채무경감조치에 동의하였음.

③ 전 망

□ PRGF를 통한 경제구조 개혁으로 장기적 성장 토대 마련

- PRGF 프로그램을 통해 DR콩고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구도 정착, 인플레이션 완화, 재정건전성 개선 등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기업 개혁, 지배구조 개선, 전반적인 영업환경 규제 완화, 빈곤계층에 대한 재정지원분 추가확보 등 경제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다이아몬드, 코발트, 구리 등을 바탕으로 2003년 이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광업은 향후 DR콩고의 장기적 경제성장 전망을 밝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

□ 채무경감조치로 채무상환부담은 크게 완화될 전망

- 파리클럽이 HIPC 채무경감조치에 동의함으로써 IMF는 DR콩고의 총외채잔액이 현재의 130억 달러 수준에서 43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 MDRI (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대상국으로 전환

□ MDRI 대상국으로 전환으로 대규모 채무탕감 혜택받을 전망

- IMF와 세계은행의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

II. 정치 및 경제 현황

ation)는 DR콩고에 대한 123억 달러 규모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결정하였음. DR콩고는 HIPC 완결시점에 도달¹⁰⁾ 하여, 111억 달러는 HIPC, 12억 달러는 MDRI의 적용받아 채무를 탕감받게 됨.

- HIPC 이니셔티브 결정시점 도달 이후 (1) IMF/세계은행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 (2) 주요 사안에 대해 만족스러운 수준의 개혁 실행, (3) 최소 1년 이상의 빈곤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 및 실행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완결시점 도달 및 MDRI로의 전환이 가능함.¹¹⁾
- 이사회는 DR콩고가 완결시점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였기 때문에 MDRI로 전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특히 PRGF의 성공적인 실행,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건강·교육 등의 주요 사회부문에서의 개선된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HIPC 완결시점 도달은 향후 경제 발전의 청신호

- HIPC 이니셔티브의 조건을 만족시켜 완결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MDRI 대상국 전환을 통한 대규모 채무탕감의 기회이기에 앞서, DR 콩고가 거시경제 관리 및 사회부문 개혁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뜻이며 이는 향후 DR콩고 발전의 견고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10) DR콩고는 2003년 7월 결정시점에 도달하여 HIPC 이니셔티브의 혜택을 받았으며, 2010년 7월 완결시점에 도달함. DR콩고는 HIPC 36개국 중 완결시점에 도달한 30번째 국가임.

11) 해당국은 MDRI를 통해 결정시점에서 결정된 채무구제액 중 기 실시된 잠정채무 구제를 제외한 잔여 전체채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함.